



**미 휴즈사, 한국에 RAM
미사일등 구매 희망**

미국의 휴즈(Hughes) 미사일 시스템사는 RAM(Rolling Airframe Missile)과 스텔거(Stinger)미사일을 한국군에 제안했다.

지난 서울에어쇼'96 기간중 열린 세미나에서 휴즈사는 RAM은 한국해군의 KDX 구축함에 가장 적합하며 스텔거 미사일은 지대공 미사일로서 지난 6월과 9월 한국에서 실시된 발사시험에서 총 22대미사일중 19발이 명중해 그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미국 최상위 지켜
세계 방위산업 랭킹**

세계의 방위(군수)산업 순위가

디펜스 뉴스지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95년 중의 특징을 든다면 상위 20개사 가운데 미국이 11개사로 미국은 아직 해가 지려면 멀었다는 느낌이다. 이에 반하여 제3세계의 무기시장을 만나마 차지하던 구소련제 무기류가 소련붕괴 위 붕괴와 걸프전쟁에서 맥을 추지 못한 탓에 40위 이하가 되어서야 러시아 기업이 몇 개사 눈에 띌 정도이다.

미국 기업은 94,95년 계속하여 합병과 매수가 진행되어 세계 무기공급에 차지하는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1990년

33%에서 94년에는 56%로 올랐고 95년에는 더욱 올라가 있다.

**미국에 일부 양보
일, 전투기 양산작업에**

FS-X로 알려진 일본의 차기지원 전투기 제작사업은 작년에 F-16을 기초로 한 시험 제작기가 완성되어 방금 각종 시험중에 있거니와 이 전투기의 양산을 앞두고 미·일 양 정부간에 양해각서가 체결 되었는데 이때 양산시의 작업 분담율을 놓고 양측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일본측이 미국에 일부 양보하여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했다고 일본 방위청 소식통이 전했다.

세계방위산업매출순위

순위() 는 94년	사명	국명	매출액 (억\$)	총매출 비율(%)
1(1)	록히드 마틴	미국	143.90	63.0
2(2)	맥도널 더글라스	미국	100.75	70.3
3(3)	BAe	영국	64.72	74.2
4(4)	휴즈 에렉트론닉스	미국	59.50	40.2
5(5)	노드롭 그리먼	미국	57.00	82.6
6(7)	보잉	미국	55.82	40.1
7(6)	로랄	미국	50.00	81.7
8(8)	통슨 그룹	프랑스	46.79	31.9
9(9)	GEC	영국	41.19	25.8
10(11)	레이세온	미국	40.00	34.2
11(10)	유나이드 테크놀로지	미국	36.51	16.0
12(32)	라기디아그룹	스위스	32.89	30.6
13(13)	벤츠항공우주부문	독일	32.49	30.9
14(12)	프랑스해군공참	프랑스	30.71	100.0
15(15)	GD	미국	29.00	96.7
16(17)	아에로스파시알	프랑스	28.55	28.4
17(21)	핀메카니카	이탈리아	28.88	32.0
18(14)	훅튼이더스트리	미국	24.00	72.3
19(19)	록웰 Int'l	미국	22.40	17.3
20(16)	미쓰비시중공업	일본	22.24	8.7

망쳐리한 기업은 격손회사

일본이 양보한 것은 양산작업 분담에서 당초 개발담당비율이 금액기준으로 일본6, 미국4의 비율이었으며 양산시의 작업도 그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이 환율변동을 이유로 이비율이 불공평하다고 우겨 결국날개부분 제조의 일부작업을 미국이 더 하도록 일본이 부득이 양보했다는 것이다.

미·일 양국은 시험 제작기가 완성오디자 곧 작업분당의 최종 교섭을 시작했었는데 향후 12년간에 도합 130기정도를 만들 예정이고 작년에 책정된 중기 방위 계획에 따라 5년간에 47기를 조달하여되어 초년도 분 11기의 제조가 계약되었다.

라팔와 F-16경합 UAE, 차기 전투기 선정에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최근 동국의 차기 전투기 최종후보에 프랑스의 라팔와 미국의 F-16 C/D-60의 두가지 기종을 놓고 선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후보기종으로는 MD사의 F-15E 간이형과 그밖에 기종은 물망에 올랐으나 비교 심사 결과 위의 두가지로 압축되었다고 한다. UAE는 아브다비와 도바이 공군용으로 약 80기의 전투기를 구입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닷소

사는 라팔기의 첫 해외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치열한 판매전을 전개하고 있어 최종 지명이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F-16 C/D의 출력60에 대하여 록히드 마틴사가 아직 상세한 성능을 밝히지 않아 다만 시스템을 근대화한 장거리형 정도로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미 록히드 마틴, 허큘리스 수상기로 개조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는 C-130J 허큘리스 수송기를 수상기로 개조하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 해군 특수부대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영 Flight Intl지가 보도했다. 이 계획은 허큘리스 밑부분에 분리할 수 있는 플로트(float)를 부착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관계자는 육상기에서 수상기로 그리고 수상기에서 육상기로 바

꾸는 것은 몇 시간 안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플로트가 장착되었을 때 비행기 뒷부분의 cargo-ramp의 사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비행기로 가능한 임무로는 특수 부대의 은밀한 침투와 탈출, 해저 탐사와 소방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방 임무에서는 물을 실을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될 것이다.

록히드 마틴사는 이 연구는 계약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록히드 마틴사는 잠재적인 고객들을 밝히는 것을 거절했지만 미 해군 특수부대가 이 고객 대상에 들어 있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록히드 마틴사는 호주의 선박 설계 회사인 Stolkraft사와 물에서 적은 저항을 갖는 배를 설계한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Stolkraft사의 설계사는 앞부분은 기본적으로 3개, 뒷부분은 2개의 플로트로 구성되었다고 말했다.

